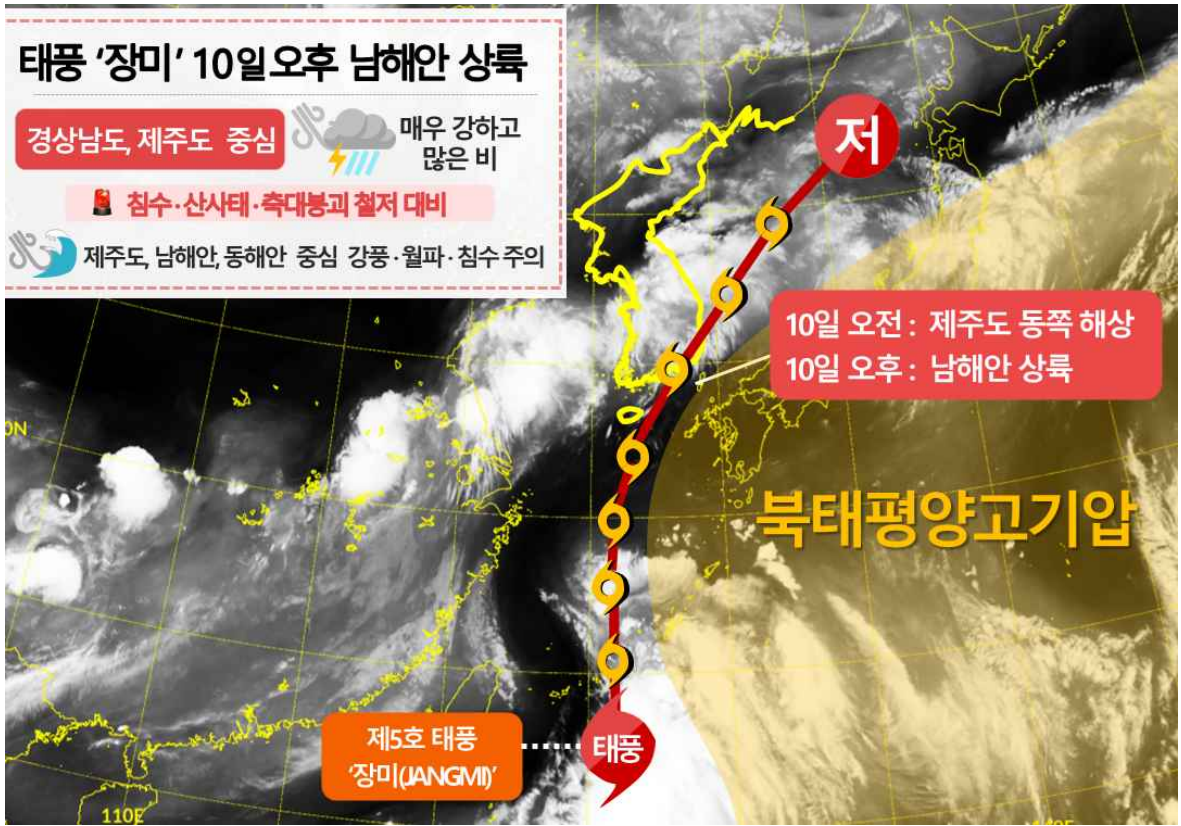


배포일시	2020. 8. 9.(일) 11:00 (총 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예보국 예보분석팀 국가태풍센터	담당자	팀장 박철홍 센터장 허택산	전화번호	02-2181-0606 070-7850-6351

태풍 10일 오후 남해안 상륙, 비 피해 우려

○ 5호 태풍 ‘장미’ 북상 중이며,
 9일(일) 밤~10일(월) 한반도에 영향 예상
 - 경남, 제주도 등 많은 비(최대 300mm 이상)



[9~11일, 태풍 예상경로와 우리나라 주변 예상 기압계]

[태풍 현황과 전망]

□ (현황) 9일(일) 0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600km 부근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JANGMI)¹⁾’가 발생하였으며, 현재(9일 09시) 중심기압 1000hPa, 강풍반경(초속 15m, 시속 65km 이상) 약 200km, 중심 최대풍속 초속 18m(시속 65km)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망) 북상중인 태풍은 10일(월) 오전에 제주도 동쪽해상을 경유하여 오후에 남해안에 상륙한 후, 점차 약화되면서 북동진하여 10일 밤에 동해상으로 진출하여 11일 오전에 점차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 태풍은 10일 새벽까지 29℃ 이상의 고수온해역을 지나면서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나, 중상층 대기(고도 3km 이상)에서는 태풍 주변으로 건조한 공기가 분포하며 태풍의 발달을 방해하고 있어 태풍이 급격히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 만조시기*와 겹치면서 해안저지대와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많은 비로 인한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만조시기 : 남해안(9일 10~14시, 9일 22~10일 02시), 중부서해안(9일 06~10시, 18~22시)

□ (변동성) 현재 태풍의 세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변화 상황에 따라 이동경로와 속도, 상륙지역이 매우 유동적이나, 향후 발표되는 태풍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임.

[기상 전망]

□ (현황)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위치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 우리나라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매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 (강수 전망) 우리나라는 정체전선과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10일은 전국, 11일(화)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 중부지방은 10일 새벽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11일까지 최대 500mm 이상)가 집중되겠고, 남부지방은 10일 밤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최대 300mm 이상)가 내리겠습니다.
- 특히, 강한 비가 지속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0mm의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고,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장 가까운 제주도와 경상남도, 지리산 부근에서도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 예상강수량(9일~11일)

- 중부지방, 서해5도: 100~300mm(많은 곳 500mm 이상)
- 남부지방,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경남, 제주(남부와 산지), 지리산부근 300mm 이상)